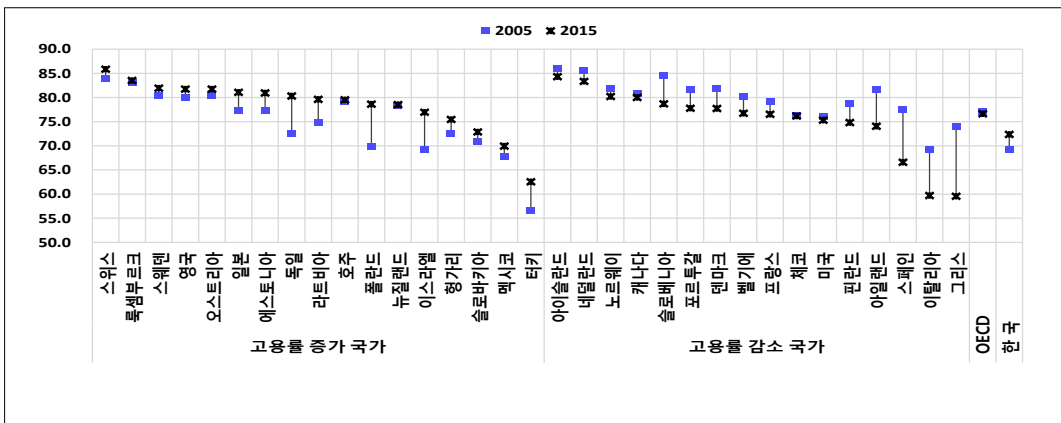


청년층(25~34세) 학력별 고용률 변화 국제비교

- 2005년 OECD 회원국 청년층(25~34세) 평균 고용률은 77.0%로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국가들로 인하여 0.4%p 감소한 76.6% 기록
 - 독일과 폴란드, 이스라엘에서는 고용률이 10년 전에 비해서 5%p 넘게 증가하였고, 일본은 3.8%p 증가한 81.1%, 우리나라는 3.1%p 증가한 72.3%를 기록
 -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, 그리스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2015년 약 10%p 감소하였으며, 특히 그리스는 2015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청년 고용률(57.8%)을 보이고 있음.
 -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2015년 청년층 고용률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음.
 - 이와 같은 우리나라 25~34세 고용률 개선은 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때문임.

[그림 1] OECD 회원국 청년층(25~34세) 고용률 변화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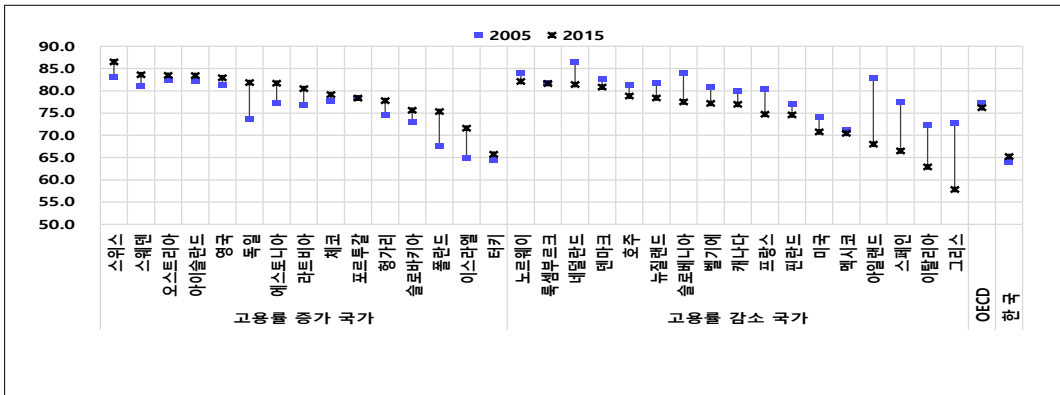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고용률 증가 및 감소 국가(2005년 대비 2015년 증감) 각각의 2015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.
 2) 프랑스는 2014년 자료를 2015년으로 대체하여 제시.
 자료 : OECD, <http://stats.oecd.org>

- 이를 학력별)로 보면, 대졸자 고용률은 평균 80%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졸자는 70% 이상으로 나타남.
 - 고졸자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나 스웨덴, 영국,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2015년 고용률이 2005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, 프랑스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.
 - 특히 아일랜드와 스페인, 이탈리아, 그리스의 고졸자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2015년 10%p 내외의 감소를 보임.
 - 미국과 독일, 일본,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대졸자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2015년 증가했는데 해당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층 고용률만이 80%를 하회하고 있음.
 - 네덜란드, 스위스,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대졸자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2015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80% 이상을 기록 중이며, 금융위기 여파에서 회복이 더딘 스페인과 이탈리아,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동기간 중 5%p 이상 감소했음.

[그림 2] OECD 회원국 청년층(25~34세) 고졸자 고용률 변화

(단위 : %)



주 : 1) 고용률 증가 및 감소 국가(2005년 대비 2015년 증감) 각각의 2015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.
 2) 프랑스는 2014년 자료를 2015년으로 대체하여 제시.

자료 : OECD, <http://stats.oecd.org>

1) 국가별로 서로 다른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교육분류(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, 이하 ISCED)를 이용하였다. 2011년 개정된 ISCED에 따르면, 교육체제는 총 8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졸자와 유사한 개념인 후기중등(고등학교) 및 중등후 비고등교육(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육 이전 직업관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는 해당 학제가 없음) 이수자(Upper secondary and post-secondary non-tertiary education)와 대졸자와 유사한 개념인 고등교육(전문대, 학사, 석사, 박사 포함, Tertiary education) 이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학제인 고졸자와 대졸자로 표기했다. 본 글의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25~34세 고졸자는 전문대와 대학교 재학 및 유학(중퇴)생이 포함된 인구이며, 대졸자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석·박사 이상 학력층을 포괄하고 있다.

